

# 2026 신한대학교 제2대 감사운영위원회 제5차 회의

일시: 2026. 4. 13. 18:30

장소: 행함관 3층 학생회의실 1

## 0. 성원점검

감사운영위원장		원채빈	
감사운영부위원장	이채은	간호대학	조영윤
공과대학	어태경	디자인예술대학	강혜성
보건대학	배서현	태권도·체육대학	문시연

총원 7명, 재적 6명, 불참 1명

\*불출석 빨강, 대리참석 노랑, 타회의 참석하여 불출석 하늘색으로 표기

## I. 보고 안건

### 1) 위원장단 보고

#### ■ 감사설명회

- 4. 15.(수) 2026학년도 감사설명회 진행 완료함.
- 추가 보완 사항으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가감 사항을 설명하였으나, 감액 관련 내용이 예산안 작성 시 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부분 수정함.
- 관련 서면 자료에 대하여 위원 검토 후 이상 없을 경우 익일 전체 공지 예정임.
  - ▶ 보건대학: 상황에 따라 식비 편성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무엇인지 질의함.
  - ▶ 감사운영위원장: 학교 공식 행사로 장시간 필참하여 업무 수행이 필요한 경우 등 식사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식비 편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됨을 설명함. 다만 각 단위별로 불가피성 판단 기준이 상이할 수 있어 사전 문의를 권장함.

## II. 논의 안건

#### ■ 감사운영세칙 제21조 관련

- 감사운영세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감사 결과 공고는 제1호부터 제6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, 제2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재학생이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인스타그램 및 학과 공지를 통해 공고 진행 중임.
- 다만 공고 내용 중 제21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기재가 피감사 단위 입장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.
- 이에 카드뉴스 내 해당 항목 기재 여부에 대하여 위원 의견 제시 바람.
  - ▶ 간호대학: 동계방학 정기감사 결과에 대한 재학생 반응을 고려할 때 단순 계산 실수에 대해서도 과도한 징계로 인식되는 사례가 있었음. 이에 징계 기준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의견 제시함.
  - ▶ 공과대학: 자료 누락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현행 징계 수준이 타당하나, 단순 금액 오기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의견 제시함.
  - ▶ 감사운영위원장: 징계 세분화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으며, 주의 및 경고 횟수를 기재하는 방식에 대한 적절성에 대하여 질의함.
  - ▶ 디자인예술대학: 재학생의 경우 세칙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 있어 주의 및 경고 누적 횟수만 기재될 경우 사안이 과도하게 인식될 수 있음. 또한 카드뉴스 외 별도 공고 방식 존재 여부에 대해 질의함.
  - ▶ 감사운영위원장: 현재 카드뉴스 외 별도 공고 방식은 없으며, 상세 내용은 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 가능함을 안내함.
  - ▶ 보건대학: 피감사 단위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 있으나 재학생 입장에서는 징계 횟수가 학생회 운영 상황을 파악하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임. 이에 미기재 보다는 징계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의견 제시함.
  - ▶ 사회과학대학: 카드뉴스 공고는 재학생 접근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유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.
  - ▶ 감사운영위원장: 위원 의견 종합 결과, 감사운영세칙 제21조 관련 내용 및 공고 방식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함.

#### ■ 정기감사 결과 공고 관련

- 감사운영세칙 제21조에 따른 공고 기준 자체에는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현 공고 방식과 관련하여 피감사 단위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.
- 특히, 시정요구 및 감사 과정에서의 문제 확인에 따른 징계 부여가 아닌 단순 지적으로 인식된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됨.
- 이에 따라 공고 방식에 대한 위원 의견 청취 및 개선 방향 검토가 필요함.
  - ▶ 공과대학: 감사 결과 공고 자체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나, 상세 사유 없이 징계 횟

수만 기재될 경우 정기감사 기준을 인지하지 못한 재학생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음. 또한 해당 방식이 피감사 단위의 업무 수행 과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부정적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. 이에 주의 및 경고 횟수뿐만 아니라 징계 사유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을 의견 제시함.

- ▶ 간호대학: 공고 진행 필요성에는 동의하며, 공과대학 의견과 같이 징계 사유를 함께 기재하거나 감사 시 피감사 단위의 개선 지점을 함께 안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을 의견 제시함.
- ▶ 감사운영위원장: 학생팀과 협의를 통해 현행 유지 방안을 1안으로 검토하되, 논의 결과에 따라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 이에 2안으로는 주의·경고 횟수 기재를 제외하는 방안, 3안으로는 정기감사 완료 사실만 공고하는 방안을 제시함.
- ▶ 보건대학: 1안을 기본으로 하되 논의 결과에 따라 2안까지는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됨을 의견 제시함.
- ▶ 디자인예술대학: 2안까지는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됨을 의견 제시함.
- ▶ 공과대학: 2안까지는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됨을 의견 제시함.
- ▶ 간호대학: 2안까지는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됨을 의견 제시함.
- ▶ 디자인예술대학: 2안 적용 시 공고문에 “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 참고” 안내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을 의견 제시함.
- ▶ 감사운영위원장: 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 논의 진행 예정이며, 세칙 관련 사항은 향후 전체 검토 및 회의를 통해 개정 예정임을 안내함.

### III. 폐회 (19:18)